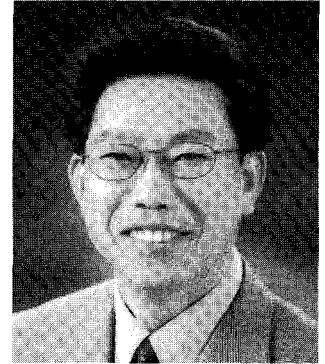


육계에서 균일도의 중요성



송 덕 진
(주) 엘피드 사장

사업가라면 한번쯤은 그 자신이 진정 무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업의 본질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육계 산업은 농장 수준에서 계육 생산단계를 거쳐 인테그레이션 (integration) 산업으로 발전되어져 왔으며, 이제는 식품산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종란생산에서 육계 농장, 부화장, 사료회사, 가공, 유통 단계까지 모든 것이 통합 개념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 추세로 가고 있다.

성장과 쇠퇴

어떤 사업이든 출현-발전-성숙-쇠퇴기 단계를 겪게 되는데, 양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쇠퇴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어떤 변화를 모색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부화업의 경우 가공업자간의 활발한 인수 합병으로 기존의 시장이 개편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육종 (breeds) 사업은 1970, 1980년대의 호황기였던

것이 1990년대 들어 쇠퇴기를 겪으면서 일부 회사들은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에 육종회사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고병원성 AI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은 관련 회사들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면 태국의 육 가공 업체들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식품 가공회사로 변신하여 지속적인 수출을 하고 있다.

소비자 요구변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육계 사업도 고품질의 위생적인 닭고기를 필요로 하는 식품회사가 있다면 종계나 부화 회사들도 이 회사의 요구에 맞는 닭고기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앞서가는 식품 회사 일수록 더 까다로운 요구들을 할 수 있는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지속성 또는 일관성(consistency)과



균일성(uniformity)이다. 이 두 단어는 동의어처럼 여겨지는데 과연 그럴까?

어떤 식품회사가 균일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길 원한다면 지속성은 균일성 보다 일시적인 것을 의미할까? 크기나 중량을 말할 때 균일성은 좀 더 양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일까? 품질을 말할 때면 이들 두 단어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 두 단어를 혼동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객과 상담 중에는 고객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하는 닭고기를 공급해 주는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 아마 독자들 또한 본 고를 읽으면서도 두 단어에 대한 혼동이 계속 될 수 있다. 최종 생산물에서 균일도(uniformity)가 왜 그리 중요한가? 소비자들은 균일한 닭고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계장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균일도에 따른 관리가 요구되어 진다.

부 화

일일령 병아리의 체중은 종란의 무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부화기에 들어가는 종란의 균일도에 따라 발생된 병아리의 균일도도 달라지게 된다.

종란의 무게는 종계의 일령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란도 계군별로 구분하여 부화시키는 것이 좋다. 부화된 병아리들도 각기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균일도 유지는 물론 나중에 이상이 생겼을 때 문제점 해결을 위한 원인 추적이 가능하다. 종란의 중량(크기)은 유전적인 것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종계 체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계의 균일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더욱이 시산 일령에 균일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사양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질병 또한 균일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인데, 일일령에서의 모체이행 항체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

자면 감보로 (Gumboro) 백신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준의 모체이행항체를 지닌 병아리에게 백신을 할 경우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모체 이행 항체가 낮은 병아리의 경우, 때를 놓칠 경우 질병에 이미 감염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체 이행 항체 수준의 균일도 또한 닭고기의 균일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된다. 병아리의 모체 이행 항체 수준은 당연히 종계의 항체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종계의 항체 수준은 일령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모체이행 항체의 균일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계의 면역 수준을 주기적으로 높여주고 산란된 종란도 종계 일령에 따라 분리하여 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음 수

닭의 균일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모든 닭들이 동일한 수질의 물을 동일한 양으로 섭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드링커(drinker)는 모든 닭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골고루 설치 되어있어야 하며, 높이도 동일하고, 유압 및 유속이 일정 해야 한다. 수질은 출하시 까지 신선하고 염분에 변화는 물을 공급 해주어야 한다.

그 외에 일조량, 광도, 온도, 환기, 사료, 깔짚 재료 및 두께 등도 균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사료의 경우 사료첨가제나 원료에 있어 일정한 품질의 원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 시켜 줘야 한다.

전기 사료의 경우 일일 섭취량이 작기때문에 필수 영양소의 균일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며칠간의 평균 영양소 섭취 보다 닭들이 쪼아먹는 매 순간마다 균일한 사료를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병아리의 경우 골격 형성과 효소작용에 중요한 미량 광물질의 섭취가 균일한 닭고기 생산에 필수적이다.

재차 강조 하지만 현대 육계산업에 있어서의 키워드(key words)는 균일도(uniformity)이다. **양계**